

# 불안에 떨지 말고 힘을내! 인생엔 2막이 있잖아



재출발로 성공한 9인  
임재영 · 오승현 지음 | 황소자리 | 1만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황인규, 윤해정, 유재선, 김진관, 윤홍근, 정동학, 신경욱, 지승룡, 성광영.

##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재출발에 성공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스미스)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가계빚과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98년 퇴출당한 동화은행 직원 4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결코 낯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실직자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박차고 나가 화려하게 재출발하기를 하려도 몇 번씩 꿈꾸고 다짐하지만 생각에만 그칠뿐이다. 앞뒤로 짝퍽 막힌 장애물들이 더 이상의 유쾌한 상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출발로 성공한 9인>에 등장하는 9명의 평범한 전사(戰士)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며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나라로 떨어져 건디기 힘든 위기를 단 한번 뿐인 기회로 발상 전환을 한다면 세상은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그들의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한 데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코 성형 전문 성형외과 의사 정동학 씨, 황인규 프랜차이즈 사장, 윤해정 샵사브전점 문점 '길조성' 사장, BBQ 신화의 주인공 윤홍근 제네시스 회장, 지승룡 민들레영도 카페 사장,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로 거듭난 주부 신경욱 씨, 유재선 E & C 사장, 재고조사 전문업체 코인트서비스 성광영 대표, 인라인스케이트 개발자로 변신한 김진관 한미레포즈 개발 이사 등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재출발에 성공했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성공의 키워드는 의외로 간결하다. '자신에게 정직할 것', '자신의 일에 치밀할 것', '필요할 때 과감하고 용감할 것',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재출발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 것' 등이다.

이론과 난소암이란 일단 좌절 앞에서 오뎅이처럼 일어난 윤해정 사장은 특히 꾸준한

분투 끝에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동그라미'라는 부부듀엠티로 활동하다 이혼해 전국의 밤부대를 누비며 근근히 살아갔지만 난소암까지 발병해 가수 생활도 접어야 했다. 이런 그녀가 위기속에서 첫 도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완주를 통해 체력과 정신력의 극한을 경험한 윤 사장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샵사브 전문점 '길조성'을 창업해 대박 성공의 신화를 만들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하고 노동운동으로 징역살이까지 했던 유재선 사장은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향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판촉물 회사를 차려 재기에 성공하더니 지금은 주물업계에 뛰어들어 각 가정에서 소장하고 싶은 대중화된 예술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그는 실패의 길 99개를 알면 1개의 큰 성공의 길이 보인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표방하며 토종 브랜드 BBQ를 만든 윤홍근 제네시스 회장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인물이다. 잇달은 사업실패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두 번씩이나 아이들을 친지에게 맡기는

### 9인이 말하는 성공 키워드

- 자신에게 정직할 것
- 일에 치밀할 것
- 필요할 때 과감하고 용감할 것
-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재출발의 터전이라고 생각할 것
-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 것

가속 해체의 수모를 이겨내고 프랜차이즈 'BBQ'를 창립해 일어난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 속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서성이든 수많은 직장인들, 떨리는 손길로 신발 끈을 동여매며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사람들, 갈 곳 없는 세상에 울 좌절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더없이 좋은 등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9명의 주인공들도 바로 열 마다까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말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책속의 밑줄긋기

▲ "무엇이든 시작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둔다면 불안은 점점 증폭되어 실패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시작할 때 보았던 가능성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실패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황인규 사장)

▲ "월급쟁이 승승을 버리지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월급쟁이 승승은 하루 아

침에 바뀌지 않는다. 월급쟁이 승승을 버리려면 월급쟁이로 일할 때 자신의 회사를 경영 하듯 일해야만 한다. 재출발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직장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윤홍근 회장)

무서워 몸을 사려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뭐든지 부딪쳐봐야 알게 됩니다. 겁내지 말고 뛰어 드세요. 경험은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진정한 재출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진관 이사)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지음 | 이레 | 1만2천원

가을은 여행의 계절. 따스한 햇살로 온통 금빛 세상이 되는 요즘은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생각이 든다. 목적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어떤 형태로든 여행은 우리 삶에 신선한 쾌적 하나를 추가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호기심의 문제다. 스위스 출신 청년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쓴 에세이 <여행의 기술>은 여행이 주는 매력을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다. '어디로라도 이 세상 바깥이거만 하다'를 외친 영국 시인 보들레르의 말처럼 여행은 훌쩍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여행을 사랑한 문인 화가 화가들과 함께 가상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여정의 발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말하고자 한다. 책은 고만고만한 여행지에 심드렁해진 여행자들의 내면을 파헤친다. 그들에게 꼭꼭 묻힌 호기심과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의 여행기를 들춘다.

'무엇을 떠나 이집트로 가서 낙타를 모는 사람이 되는 것 하려면서 코피에 숨겨 자국이 있는 올리브빛 피부의 여자에게 동정을 잃는 것' 이 꿈이었던 플로베르는 이집트 카이로의 열기와 당나라 그

##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때...

### 호기심만 있다면 누구나 시인이고 예술가

리고 낙타가 풍기는 이국 정서에 흠뻑 취했다. 이국적인 요소들이 끌어당기는 강렬한 반응이란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느낄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책의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저자는 고흐가 1888년부터 2년 간 머물렀던 프랑스 남동부의 옛 도시인 프로방스로 찾아간다. 거기서 만난 원주형 교목 '사이프러스'. 저자는 그 나무에 대해 고흐는 보았지만 다른 화가들은 보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여행자 입장에서 알려준다. 고흐의 수많은 사이프러스 그림들에서 유난히 목적이 휘어 보이는 이유 말이다. 그것은 나무 줄기가 유난히 짧아 심지어 위 3분의 1이 아예 가지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딱딱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줄기는 꼭꼭 잡는 데 반해 사이프러스는 줄기 자체가 바람에 구부러지는 것이다. 저자는 화가가 어떤 장소에 대한 특징을 매우 예리하게 선별했다면 여행자는 거기서 그 위대한 화가가 본 것을 똑같이 포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여행의 힘이란 바로 그런 예술가의 눈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을 음미하고 예술을 사랑하고자 하는 호기심만 있다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화가도 된다.

젊은 날 스무살이 예술의 궤적을 찾아 배낭을 꾸려 본 경험이 있는 나는 하나의 기술을 더 제기하고 싶다. 아는 만큼 느끼는 법이므로 사전에 많은 예술가의 정보를 알고 간다면 현장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그 예술세계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다가오는 가을 이 책을 읽고 멋진 여행을 설계해 보자. 분명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남겨진 정신적 승수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홍수연 (TIP여행사 대표)

###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중경·극락도·지옥도·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심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 대형주차장안비
- ▶ 점심공양 가능
- ▶ 입장료 무료
- ▶ 주유 명소: 흥천온천, 천년고찰 수터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 매표: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업산 연화사  
전화: (033)433-1815, 433-2009 팩스: (033)433-5206

### 법요집·기초교리集과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과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한 해부서도 교리 공부를 필요로 하시는 불자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조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할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 요 집

- 삼귀의
- 전양행법
- 반야심경
- 입정
- 청빙가
- 법문

#### 기 초 교 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성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양삼매론

■ 기획: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02-772-9052

##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리 아래한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오늘날 중국 백담사와 보봉사에서는 차나에 끼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각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수련내용: 無心, 無分別智, 無分別後得智, 스스로 입장소멸과 영적문제 해결 확인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생각기술교육원

### 불자의 긍지 · 수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김종렬	051)632-0064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호남지사	이준엽	062)375-9986
전북지사	조기식	063)255-2274
경남 동부지사	해봉스님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보성스님	055)547-3469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충북지사	일봉스님	043)258-3282
대전지사	류재희	042)534-6523
옥천지국	해철스님	043)732-5560

\* 9월 1일부터 옥천지국이 신규개설 되었습니다.